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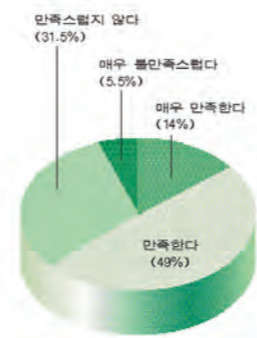
## 지면 안내



### 개교기념 특집 ... 6면 홍기삼 총장 인터뷰

건학 100주년을 2년 앞두고 '동국발전'에 대한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교 홍기삼 총장을 만나 건학 100주년 지향점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동국대 구성원이라는 점에 만족하십니까?



### 개교기념 특집 ... 8면 설문조사·만나고 싶었습니다

본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동국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교수, 4·19혁명 주도자, 92년 수석졸업자를 다시 만나보았다.



### 학술 ... 5면

#### 동국문학 100년을 짚어본다.

만해 한용운부터 양주동 박사, 신경림, 조정래에 이르기까지 동국 인문학을 이끌어온 동국문학 100년을 짚어보며, 문학으로 살펴본 동국의 학풍을 알아본다.

### 사람 ... 12면 국회의원 당선 동문인터뷰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재성(불93졸), 조승수(농경96졸) 동문을 만나 앞으로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건학 100주년

## D-728

흰 코끼리여, 너는 참으로 장쾌하게 달리구나  
- 동국대학교 개교 98주년을 기리며

흰 코끼리여, 너는 참으로 쉬임없이 달리구나  
삶의 사막, 시간의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앞을 달리구나

네가 지나온 사막마다  
네가 만들어놓은 오아시스들은 끊임없이 달리던 물들을 내뿜고  
오아시스의 푸른 나무그늘 아래  
지혜에 목마른 사람들은 갈증을 씻어낸다

네가 지나온 바다마다  
네가 만들어놓은 섬들은 끊임없이 떠드는 배들을 품어안고  
슬기롭게 섬과 섬을 이어나간다

흰 코끼리여, 너는 참으로 장쾌하게 달리구나  
잠들어서나 깨어서나 너의 발소리는  
우리의 심장에 메아리치구나

너로 하여  
해와 달이 드문 바람을 비추는 동쪽나라  
나무며 풀들이 바람처럼 싱그러운 누리에 자라나는 동쪽나라  
산과 강, 바다와 섬들도 잔칫날처럼 신명나 노래부르는 동쪽나라

너의 발소리마다 하늘의 별들은 깨어나 별빛을 뿌려대고  
너의 발소리마다 땅위의 꽃들은 깨어나 향기를 뿜어내고  
사람들은 그 별빛에 눈을 씻고 그 향기에 마음을 씻어내구나

이제야 알겠느니  
우리 역시 너를 따라 달리며  
동쪽 나라의 새 역사를 기록하느니

흰코끼리여, 너는 참으로 장쾌하게 달리구나

박 제 천 (동문 시인·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기획광고

발행기금 060-700-0119



## 비가 와도 동국인은 걷습니다

올해로 동국대학교가 개교 9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국인의 꿈과 희망을 담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동국이 되어  
다가오는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걸읍시다.

**본교의 개교 98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진 - 지난 9일 진행된 '국제걷기대회' 중

# 일류동국 향한 힘찬 발걸음

## 98주년 개교기념식 열려 ... 장기근속 교직원 등 표창



제98주년 개교기념식이 지난 7일 오후 4시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김현해 이사장,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 개교기념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표창장 및 공로상 수여 △교가제창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홍기삼 총장은 기념사에서 "백년을 앞둔 동국의 전통과 역사는

다시 한번 엄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해야만 교육 강화를 토대로 한 일류 동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상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으로 나눠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는 강성운(북한학) 교수와 윤범대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을 비롯한 57명이다.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30년 근속 = 강성운 규규석 윤범대 안준욱 김명숙  
△20년 근속 = 민병록 김성근 임호일 정수현 김영순 정진환 이혜은 박정훈 문용주 김종성 백경선 박태호 권혁자 조경진 이응구 최국진 김중철 신해철 이익성 안관순 이상오 김홍종 최옥향

△10년 근속 = 김용표 봉일원 유국현 조훈영 이영면 엄기환 이동욱 유승룡 이의수 임종주 최은만 김혜숙 김성훈 박성식 박준수 김영훈 고재선 주현석 유한림 김병호 김종기 박희동 박세훈 조계상 오수인 교봉기 안중철 김성구 박종린

**연구업적 우수교원 수상자**  
이지수 오태석 이승영 문태수 임현식 김해철 임민중 박상진 임현술 김동일

**공로상 수상자**  
김태식 김홍모 문상국 방중혁 이우영

**공로패 수상자**  
정동일(서울시 전의원·야간경영4)

# 총학, 본관 점거 해제

## 학자요구안 논의 계속할 방침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가 본관점거농성 38일 만인 지난 7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이는 6일 비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교육부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라는 성과를 얻었고 등록금 동결 등의 남은 과제는 앞으로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 총학생회장은 "해제 후 학교 측에서 총장과의 면담 자리 마련 공문을 보내와 학교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늦은감은 있지만 점거를 해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학생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화가 모든 것을 용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으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회를 설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학교와 학생회의 대화자리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처(처장=이관재·통계학)에서 오는 13일에 총장과 학생회의 면

담 자리를 마련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학생회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자요구안의 구체적 실현 여부에 대한 학교와 학생회간의 의견 조율 및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부터 교육부 감사 사전예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앞으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무명한 감사 실시'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벌일 예정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2004년도 연구업적우수교원 선정

### 이지수 교수 등 10명...연구지원금 지급

연구처(처장=박중훈·윤리문화학)가 2004년도 연구업적우수교원 10명을 선정했다. 우수교원은 △인문계열=이지수(인도철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사회계열=이승영(국제통상학), 문태수(정보산업학) △자연계열=임현식(반도체학), 김해중(통계학), 임민중(네트워크관리학) △예체능=박상진(국악과) △의학=임현술(의학과), 김동일(한의학과) 교수이다.

이번 선정은 연구업적 우수교원 포상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3년간의 연구업적 총점이 계열별 상위 10% 이상이며 국내·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5편이상(인문·사회·예체능 계열 4편) 게재한 교수 중 수상인원의 2배수를 연구처에서 추천해 총장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부터 최근 2년내 수상자는 제외됐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소정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됐다.



어느덧 ... 2004학년도 예비졸업생의 졸업앨범 촬영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카메라를 보고있는 예비졸업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축구부 힘멜코리아배 3위 입상

## 야구부, 오는 13일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첫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지난 4월 26일 막을 내린 '2004 힘멜코리아배 전국중계대학연맹전'에서 3위에 입상했다.

총 58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16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연세대와 중앙대, 고려대를 차례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후반대에 접어들어 0:1로 패배해 송실대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축구부는 지난 3월 대통령배 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공동 3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김영중(체교4) 선수가 이번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야구부(감독=김학용)가 동대문야구장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54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대학팀과 프로팀 2군을 포함한 총 3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

트 방식으로 치러지며 부전승으로 오른 본교는 제주관광대와 SK 경기의 승리 팀과 오는 13일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 교직원 인사발령

본교가 지난달 26일 교원보직·직원정보인사를 단행했다.

교원보직인사는 △산학협력단장=백수현(공과대 전기공학)이며, 직원정보인사는 △대의협력처 기획사업팀장=박정훈 △학생처 취업지원팀장=한문우 △교육기획단 기획운영팀장=김윤경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이동규 △불교병원개원추진단 총무팀장=문용주 △법원사무처 총무부장=박상관 △서울강남한방병원 원무부장=김병수 △의료원 기획심사과장=박근서 △의료원 구매과장=김종성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장=이익성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장=전병권 △대의협력처 기획심사팀장=김정태 △교무처 학생선발실=이권학, 박선희 △연구처 연구개발팀=서정욱 △연구처 연구지원팀=임조경 △학생처 학생복지실=김정태 △총무처 총무팀=이창학 △총무처 시설관리팀=변재덕 △총무처 재무회계팀=이영숙 △총무처 구

매팀=김범중 △대학원 교학부 교학과=김은수 △행정대학원 교학부=신기훈 △교육대학원 교학과=손덕승 △사회과학대학 교학과=장금숙 △경영대학 교학과=김미경 △사범대학 교학과=김병호 △정보산업대학 교학과=장동미 △출판부=권우성이다.

## 순수취업률 60.7%

본교 2003년도 순수취업률이 6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1%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순수취업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졸업자 중 △근대 △대학원 진학 △학인 미대상자를 제외한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통계낸 것으로 2970명 중 1348명이 취직했다

**본 사 사 령**

- ◇ 임 수습기자
  - ▲ 정연희 (경영대1)
- ◇ 면 기자
  - ▲ 최우석 (불교대 불교3)

- 이상 5월 10일자

## 보리소

### 연기, 마음, 깨달음

연기(緣起)는 석가모니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이다. 그런데 연기설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만 주목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낳았다. 연기는 인과(因果)적이기보다는 동시율(同時律)에 가깝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연속적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적이고 연속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無常). 그것은 독립하는 실체가 없다(無我)는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움(苦)을 준다.

하지만 연기설은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에서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조건지어진(합성된) 것이다. 그것은 생기고 없어지는 본성을 가진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따라서 그것들이 평정되면 평온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설은 비영원성(無常)을 주장하는 것이고, 결정론과 비결정론을 넘어 '깨달음'(覺)으로 이끈다.

어느 날 '모든 것'(一切)에 대해 묻는 생문 바라문에게 불다는 "모든 것"은 십이처(十二處)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주체인 인간(六根)과 객체인 환경(六境)이 만나 이루어지는 경계(십이처)가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거꾸로 매달려 있게 하는 것'(苦)은 우리의 '거짓 마음'이다. 거꾸로 매달린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懸解), 그것은 몸·입·생각으로 잘못 지은 것을 푸는 것이다.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연기로 보는 것(如實之見)이 '깨달음'이다. '연기 곧 깨달음'은 거짓 마음을 푸는 것, 즉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연기설의 본질은 정당한 결의와 노력만이 우리 삶의 길조라는 것이다.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 2004년 예비군훈련 일정

1. 교육대상
  - 기본훈련8시간 : 전역1~6년차 학생예비군('03 ~ '98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 2004년 전역자 / '97.12.31이전 전역자(전역7~8년차 예비군)
3. 교육일정/장소
  - 기본훈련8시간 대상자(전역1~6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일정	5.17(월)	5.18(화)	5.19(수)	5.20(목)	5.21(금)	5.22(토)	5.25(화)	
대상	공과대 전자공학전공 전자과 토목환경공과 토목공과 건축공과 건축공과전공 생명화학공과	공과대 화학공과 화학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기계공과 이과대 예수대	사과대	불교대 사학,철학 양리문화 국문학 독일학과 목아목문 일어일본 국어국문 생자대 대학원 교직원	불교대 사학,철학 양리문화 국문학 독일학과 목아목문 일어일본 국어국문 생자대 대학원 교직원	정보 산과대	경영대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 중어중문학 사범대 이안강좌

4.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 투화, 고무편, 요대)
  5. 휴대품 :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증(가급적지참요망)]  
본실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사항
    - 가. 구과발 집결지에서 북한산방향(1번출구)으로 300미터지점에 셔틀버스 대기
    - 버스탑승시 동국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탑승
    - 셔틀버스운행시간 : 06시40분 ~ 7시20분까지
    - 나. 개인자전거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다. 08시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에도 입소불가
    -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연대본부에 1주일전 신고하여 일차조정
-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 ☎2260-3073 ~ 4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

## 인터넷 증명서 발급 개시 안내

증명서서비스의 질 제고와 민원인(재학생, 졸업생)의 편의를 위해 우리대학에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1.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개시일
  - 2004.5.3(월) 09:00부터
2.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대상
  - 가. 서울캠퍼스
    - (1) 학부 : 1980년 이후 졸업자부터 (1979년 이전 졸업자는 전산화후 서비스 개시 예정)
    - (2)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 전체 졸업생 (다만, 수료료자 및 제적자는 1992년 2학기 이후 입학자 부터)
  - 나. 경주캠퍼스
    - (1) 학부 : 1983년 이후 입학자부터
    - (2) 대학원 : 전체 졸업생 및 재적생
3. 인터넷 증명발급 방법
  - 가. 학교홈페이지(인터넷 증명발급)창에서 로그인 후 신청 및 발급
  - 나. www.webminwon.com에서 발급기관(동국대학교)선택후 신청 및 발급
4. 인터넷 증명발급 주요기능
  - 가.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개인용 프린터 직접 출력)
  - 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e-mail을 이용하여 타인 또는 기관에 전송
  - 다. 증명서 위,변조 확인을 위한 24시간 원본대조 확인 서비스
5. 증명발급 수수료 : 대학 증명수수료+ 대행수수료
  - 가. 대학 증명수수료 : 현행 증명수수료와 동일
  - 나. 대행수수료(업체수입) : 재적생과 졸업생의 구분없이 1통에 1,000원(추가발급시 1통당 500원)
6. 발급수수료 결제방법 : 신용카드, 핸드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ebminwon.com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 동국인 자동차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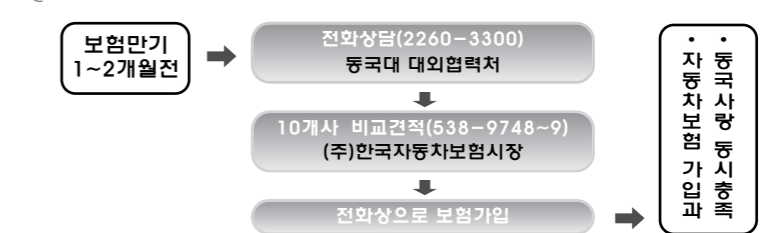
### 동국인 자동차 보험이란?

- 기부자의 별도 부담 없이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간접기부방식으로
- 보험전문회사(주)한국자동차보험시장)와 협약하여 안전한 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전국 10개시의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 수익금의 일부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보험 가입 대상

백년 전통의 민족사학 동국대를 사랑하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 (동문, 교직원, 불교신도, 기부자 등)

### 가입 절차



### 세부 사항

- 자동차보험의 자유와 → 회사마다 다른 보험료 책정 → 비교견적을 통해 적합한 보험상품 선택 가능
-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academic.dongguk.edu/bajun/)의 동국자동차보험을 클릭하고 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내 드립니다.
- 동국대 홈페이지의 비교견적과 전문기자의 친절한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귀하는 보험과 기부라는 두가지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예우 사항

- 학교 신문 및 홈페이지에 월별 가입자 명단 게재
- 감사의 편지 발송
-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안내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TEL : (02)2260-3300

# 야간강좌 주간으로 단계적 전환

## 신입생 지원 감소 등 원인 ... 논의배제 학생회 반발

본교 야간강좌가 2005학년도부터 2년에 걸쳐 주간강좌로 전환된다.

현재 야간강좌는 6개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해에는 △경제 △경영 △정보통신학과, 오는 2006년에는 △회계 △국제통상 △영어영문 통·번역학과가 연차적으로 변경되며 이 중 영어영문 통·번역학과는 경우 문과대 영문학부에 속하게 된다. 이는 다음해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해당 학과가 전환된 이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주간강좌로 전환 할 수 있다.

야간강좌 폐지는 신입생들의 지원 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각종 시아버 대학 신설과 학점 은행제 확대 등으로 취업자들의 학습기회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정보통신공학과와 경우 2004학년도 입시에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야간강좌의 입학접수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어 학교 전체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소재와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야간강좌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경희대와 성균관대는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야간강좌를 폐지했다.

또한 우려되던 강의실 포화 문제는 구도서관 리모델링과 필동중대부속병원 인수 등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 변민우 계장은 "주간강좌로 전환되는 해당학과와 경우 더욱

많은 공간을 지원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교수를 충원해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윤권·정동4)에서는 학생들과의 논의자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간강좌 설립당시 그 근본 취지를 '취업자들의 교육기회 보장'에 두었던 만큼 학교 경쟁력 약화 등의 시장 논리로 이를 저울질 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권과 공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간강좌의 취업전형 입학자 이주희(경영2)양은 "야간강좌를 듣는 이유가 단순히 지

식만을 얻는 것보다는 대학 생활의 정취를 직접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에서는 앞으로 야간강좌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외부 동문이나 타 학교 학생들, 장기 취업자 모임 등과도 연대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학교 측과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의 자리가 없어 야간강좌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급한 학생과 학교 측과의 만남의 자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특성화사업 가속될듯

## 교육기획단·산학협력단 발족

교육기획을 전담하는 교육기획단(단장=고진호·교육학)이 지난 달 26일 발족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기획단은 총장직속의 한시적 특별기구로서 △교육 내실화·특성화 방안 연구 △불교 생태학 운동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외부 동문이나 타 학교 학생들, 장기 취업자 모임 등과도 연대해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기획단에서는 그동안 교양교육운영실에서 맡아 진행해 오던 2005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전담해 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기획단의 신설로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여러 부서의 산발적 업무 분산을 벗어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진호 단장은 "그동안 연구업적에만 한정돼 있던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교육업적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4면(해설)

교육기획단은 실무진 외에도 기획 및 계획안을 고안할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강화프로그램의 기획운영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목적으

로 산학협력단이 지난 달 26일 창설됐다.

이는 그동안 학내 창업지원센터와 산학협력기술센터가 맡아오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지적재산권·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산하에 창업지원단과 산학기술협력센터를 운영하며 행정지원부를 신설해 산학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조정 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협력단의 구성으로 그동안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처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맡아오던 이와 관련한 업무가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학협력단 이석성 부장은 "산학협력과 관련한 연구를 전문화하기 위해 산학기술 연구원을 부설 연구소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나의 분야에 대한 통합된 부서 운영이 관련 분야의 특성화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회전무대

## 게시판은 휴식중

○...각 학과 게시판은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는데.

이유인즉 학과별 게시판이 따로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따라 대자보 부착을 위해 설치된 게시판이 텅 빈 대신 벽면이 손상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과 게시판이여, 벽면에서 인기비결을 물어봐~"

## 인내심 테스트

○...요즘 본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운동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학생 수에 비해 운동기구들이 턱없이 모자라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문이라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인원에 맞는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체육관의 한 수업에서 우리는 체육이 아니라 인내심을 배운다?!"

## 반쪽 강의

○...이번 학기 경영대 한 교양 과목에서는 강의 결혼이 유행이라는데.

이유인즉 일주일에 두 번 실시되는 수업인데도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번만 수업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양해 없이 정해진 수업을 지속적으로 결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000교수(강사)가 수업할 확률은 2분의 1, 잘 찍어 출석하지?!"

## 인체공학 의자

○...원훈관 3층에는 위험천만한 흔들의자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3층 복도에 있는 4인용 의자 하나가 파손돼 흔들리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무심코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균형 공학 실습을 위해 공대생에게 특별히 마련된 의자?!"

지난 1385호 회전무대 '학생회 조건의 내용 중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실습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공수업을 듣지 못할 것'을 '실습실 이용과 전공수업 배정시 불이익을 당함'으로 바로 잡습니다.

## 종교계 지도자 초청특강 12일 조용기 목사 진행

불교대학원(원장=한보광·신학) 종교계 지도자 초청 특강이 오는 12일 오후 7시 엠버서더호텔 오기드룸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기독교 헌금관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수업중 하나이다.

## 대우건설 채용설명회 17일 오후 4시 중강당

대우건설 채용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4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대우건설 인사관계자가 참석해 △채용설명 △기업 홍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오는 13일부터 병역필 또는 면제자인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신입사원 △인턴실습생 △3학년 실습생 등을 인원제한 없이 채용할 계획이다.

## 은사에게 따뜻한 편지를 오는 12일까지 학생복지실

학생복지실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제23회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보내기' 행사를 실시한다.

초·중·고등학교 은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행사를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학생복지실로 신청해야 한다. 1인당 최대 3명의 은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오는 13일 발송될 예정이다.

## 원충 체육대회 17일부터 축구 등 12일까지 신청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경민·국문학과 석사과정)가 오는 17일부터 5일간 불철대학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만해광장에서 진행되며 종목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10개이며 신청자가 4명이하일 경우 해당 종목은 폐지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2일까지 방문접수나 대학원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시상식과 뒷풀이는 대회 마지막날 진행될 예정이다.

## 수계대법회 13일 정각원

수계대법회가 오는 5월 13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수계식은 이법산 정각원장의 계사로 진행되며 교수와 직원, 학생, 일반인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참된 지도자의 길... 불교대학원에서는 지난 달 28일 엠버서더호텔 오기드룸에서 제3회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김수환 추기경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추기경은 '21세기 지도자'에 대해 강연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해외탐방 신청 실시

## 19일부터 학생복지실에서 접수

2004 동국해외탐방장학생 모집을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학생복지실에서 실시한다.

선발인원은 20개팀 60명이며 선발된 팀은 연구활동비 등 탐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서류심사와 면접일정은 다음달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포함한 동일 전공 재학생 3명으

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선발인원은 20개팀 60명이며 선발된 팀은 연구활동비 등 탐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서류심사와 면접일정은 다음달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 “바이러스 백신 설치합시다”

## 오늘부터 일주일간 단계적 설치

정보관리실에서 인터넷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자동배포 솔루션'을 오늘(1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백신 프로그램은 본교 컴퓨터 담당수에 감염돼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하는 것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건물별로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기간 동안 본교 컴퓨터 사용자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정보관리학) 정보관리실장은 "백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학내 많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받아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03년도 연구비 중앙 관리 실태 조사결과 본교가 A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항목은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비 관리 전산화 수준 등이며, 이 중 본교는 여러 항목에서

높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본교는 연구비 총액의 15%를 연구간접비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의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 부처님 오신날 전 동국인 연등달기 안내

본교 정각원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동국인 약진하는 정진의 등' '국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등'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달기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 동국가족은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무량한 선근 공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 1. 연등 접수

가. 접수일자 : 4. 27(화) ~ 5. 26(수)  
나. 접 수 처 : 우)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정각원 사무실  
다. 연 락 처 : ☎ 2260 - 3016 FAX 2260 - 3744

### 2. 연등 점등식

가. 일 시 : 5. 13(목) 18:30~  
나. 장 소 : 본교 불상 앞  
다. 참석대상 : 교직원, 학생, 일반인

## 공 고

### ● 재권련 특성

물건법에 이어 재권련 특강을 고시지도위원회 사법 시험반에서 실시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국인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특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5월 10일 ~ 15일 (총 6회)
2. 시 간 : 오후 6:30 ~ 10:30
3. 장 소 : Q 101 (10일), E 320 (11일~15일)
4. 강 사 : 이창근 변호사 (경태학관 민법강사)
5. 교 재 : 민법각론 김준호저 및 프린트물
6.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사무실
7. 수 강 료 : 계산고시학사내 사법시험인입차 1만원, 본교생 2만원, 타교생 3만원 (100% 출석시 민원인불)
8. 신청기간 : 5월 3일~5월 11일 17시까지
9. 기 타 : 본 강의 내용이 6월말에 실시하는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에 반영될 예정이다.

### ● 사법시험반 고시장학생 선발

1. 대 상 :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응시자(재학생에 한함)
2. 신청기간 : 2004년 5월 3일(월) ~ 14일(금)
3.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사무실
4. 제출서류 : ① 신청원서(사진1매, 제일은행 계좌번호) ② 사법시험 응시료 사본 ③ 성적표(법무부 홈페이지 사법시험 성적확인란에서 성적을 인쇄)
5. 선정기준 : 제4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성적
6. 장 학 급 : 성적에 따라 4단계(10,20,30,40만원)로 차등지급 함
7. 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점수 2.0이상, 17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7학기 이수자는 12학점 이상)

### ● 1차 입학자 수험준조비 지급 안내

1. 대 상 :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 합격자
2. 내 용 : 2004년 7월~2005년 6월까지(1년간) 월 20만원 지급
3. 신 청 : 5월 12일까지 계산고시학사 사무실(2260-8885)로 합격 통보(응시번호,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E-MAIL)
4. 제출서류 : ① 1차시험 합격서(법무부에서 발급) ② 응시료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졸업증명서
5. 지급기한 : 5월 31일까지

##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 2004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 1. 개설대상 교과목 및 개설시간

가. 2004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 2학기 개설예정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교과목은 개설대상 교과목에서 제외.

나. 수강신청 및 등록 결과로 강좌 개설 여부를 확정합니다.

다. 직필 및 전공 교과목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라. 교양 교과목 중 1, 2학기 동시 개설과목은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마. 교양 교과목은 학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학수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 2003학년도 계절학기에 개설된 강좌는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2004. 6. 22(화) ~ 2004. 7. 16(금)  
- 주 4일 수업(월·화·목·금요일, 단 7월 14일(수)은 수업일치), 16일간.

나. 계절학기 강좌

(1) 수업과 풀프과목은 주 5일 수업(월 ~ 금, 10일간).  
가) 풀프 : 2004. 6. 22(화) ~ 2004. 7. 5(월), 오전시간 배정  
나) 수업 : 2004. 7. 5(월) ~ 2004. 7. 16(금), 오후시간 배정  
(2) 산사의 생활(2차 3일) - 2004. 7. 19(월) ~ 7. 21(수)

### 3. 강좌개설 기준인원

10명 이상(전공, 교양, 교양)

###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0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장시항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대학대학 교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됨.

### 6. 수강신청

가. 기간 : 2004. 5. 11(화) ~ 5. 13(목), 9일간  
나.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서울캠퍼스  
가) 일시 : 5. 11(화) 오전 09:00 부터 5. 13(목) 24:00까지  
나) 장소 : 교내 자유 실습실  
(2) 경주캠퍼스  
가) 일시 : 5. 2(수) ~ 4(금) 9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다.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 7. 교내 수강신청 장소

건물명	실습실명	개방시간
명진관2층	A2	09:00 ~ 22:30
동국관M동 1층	Cyberland	09:00 ~ 22:30
	BSC7	09:00 ~ 22:30
동국관M동 5층	BSC10	09:00 ~ 22:30
정보문화관동 5층	ESC4	09:00 ~ 22:30
정보문화관동 2층	ESC5	09:00 ~ 22:30
학원관 3층	JE	09:00 ~ 22:30
중앙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	09:00 ~ 17:00
해라관 2층	CAMPUS#	09:00 ~ 22:00

### 8. 수강료

가.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5,000.  
나.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지부반.

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음.

### 9.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 2004. 5. 18(화) ~ 5. 19(수), 2일간.  
나. 유의사항  
(1) 최초 수강신청(5. 11(화) ~ 5. 13(목)) 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5. 17(월) 게시하시어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 10.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4. 5. 24(월) ~ 5. 28(금), 4일간.  
나. 방법  
(1) 교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 계절학기에서 출력  
(2) 수납은행 :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집 :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Tel. 02-2260-8990)  
다. 유의사항 :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음.  
(3)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5월 2일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 11.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일정 확정표

2004. 6. 2(수) 예정

사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서요.

- 개교 98주년을 맞이하며

늑음이 싱그럽다. 그러나 교정을 걷는 마음은 우울하다.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38일간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이 농성을 풀면서 각종 집회와 비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어느 신문에서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30개 경제국 가운데 15위로 중국·인도에 뒤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최대 요인이 불안한 노사 관계와 부실한 대학 교육 때문이라는 보도 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이런 과정과 회행, 갈등과 반목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대한 불안감이며, 개교 100주년이 어느덧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초조감이다.

본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는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해제(1895), 원흥사 설립(1899), 관리서 설치(1903)를 통해 불교 재건의 의욕을 보여준 대한제국이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1906년에 설립됐다. 종무소(1904)에 이어 원흥사마차 폐지(1906)되자 홍철초 이보만 스님이 원흥사에 불교연구회를 설립하고, 전국 사찰들과의 교무 연락을 통해하는 한편 명진학교를 세워 전국 사찰의 승려들을 모아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발전과 육성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핀다는 진리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았을 때도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른 한국의 근대사와 동국의 100년사는 고통과 쾌락, 갈등과 반목, 극복과 환희의 과정을 함께 나누어 갔다. 본교의 개교 100주년 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또한 진지한 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학교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아직도 불신의 벽이 가로 놓여 있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애교심이 강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거나 포기되었다는 사실에서 야기되는 분노, 그로 인한 공격성 그리고 자기 비하의 삼각대로 구성되는 포기 신경증 또는 고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를 어렵다.

개교 100주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오늘,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애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흔히 갖기 쉬운 애증이며, 사랑하기에 떠나고 싶은 과거학생의 유혹이라면 너무 낙담할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다만 학교 당국에 그들의 '당신의 위험을 위하여는 황금의 칼도 되고 강철의 방패'도 되는 넓고도 보드라운 가슴을 보여주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 그 서럽고 독한 마음을 거두고, 머리보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애교심을 실천해야 마땅하다. 나는 너이며 너는 내에 다름아니지 않던가. 그리고 '아아 잊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져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다'면 더욱 그렇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서요. 당신은 당신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개교 9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구성원 모두 다시 한번 음미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별은 미의 창조'일 때 비로소 위대하다. 위대한 18만 동국인들이여!

본교 학과제 논의 현황 점검

생자대 다음해 전환, 경영대 등 현행 유지 단과대별 입장차이 ... 논의과정 학생 배제

2005학년도부터 생자대가 학과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불교대와 사과대, 경영대는 학부제 모집을 유지할 방침이다.

생자대는 단과대 내에서 △인기 학과로의 편중 △전공탐색기간의 제 가능 상실 △전공이해의 심층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학과제 전환을 결정했으며 △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모집한다. 또한 생자대는 학과제 전환 이후 생길 문제점에 대비해 학과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커리큘럼의 다양화 및 교수 확충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학부제를 유지하는 단과대 내 입장은 다양하다.

불교대의 경우 오는 2006년까지 정부의 BK21 지원을 받으려면 학부제가 필요하고, 사과대는 아직 단과대 내 논의가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경영대는 경영대 내 학문 대부분이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탐색 후 전공결정을 하는 학부제의 장점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과대 내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학부제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세계적 흐름이 학부제'라며 굳이 학과제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분 학부제인 정산대는 산업시스템공학부의 경우 본래 한 전공을 두가지 세부전공으로 나눠놓은 터라 학부제가 유리하다고 일치를 본 반면 컴퓨터·멀티미디어 공학부의 경우 학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과제 전환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김무봉(국어국문학) 교무처장은 "단과대별 특성에 따라 학부제와 학과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각 단과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과대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배제돼 학생회측이 반발하고 있다.

경영대 학생회는 "지난해 논의자리가 있었지만 결국 일반적으로 공고된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경영대 축제에서 학부제 폐지 등을 주제로 정해 학생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또한 김재동(불교4) 불교대 학생회장은 "BK21 지원은 대학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부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각 학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과 활동을 지원·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사과대와 정산대 학생회 또한 "과별 논의의 진행 및 교수와의 간담회 추진을 통해 학부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각 단과대 학생회는 그동안 학부제 폐단으로 계속 문제시 돼왔던 △신입생 사이에 학점을 따기 위한 과열된 경쟁 △인기학과 편승 △학생들의 소속감 부재 등의 이유로 학과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과제 전환이 교수 책임시간과 관련해 교수들의 소극적 태도를 자아낸다고 주장한다. 학과제로 전환할 경우 전공이수 학점이 기존 12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늘어나 교수 책임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공 교육 강화 문제와 교수 처우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고진호 신임 교육기획단장 인터뷰

“교육내실화 위해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기획할 것”

이에 고진호(교육학) 교육기획단 단장을 만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취임 소감은. = 교육기획단은 지난 2월 27일 구성됐지만 인사발령이 지연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만 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상황이나 교육기획단이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 조직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 대학 본연의 역할이 '교육'인 만큼 교육 강화는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교육기획단에서는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논의 하는 단계이다. 이 중 그동안 교수들의 연구 활동 지원에만 한정돼 교육적 활동은 비교적 소홀히 됐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업적 우수 교원을 선발해 시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강의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수 교원 초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2학기부터 '좋은 수업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학업 성취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 논의와 기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된다는데. = 먼저 본교의 여러 분야의 교수들을 초빙해 크게 교육기획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육 내실화 방안과 교육특성화 방안을 총괄

의의하며 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생태학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추진하는 불교생태학특성화추진위원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 한시적인 기구로서 정지적 교육정책을 수립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 교육기획단은 현 총장의 임기 만료까지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에 최대한 임기 내에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라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다음 총장이 재임하더라도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을시 교육기획단의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류성녀 hallowinbi@hanmail.net

2004 동국해외탐방장학생 선발 안내

2004 '동국해외탐방장학'은 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현장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1. 탐방대상: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2. 응모주제: 전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 및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3.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장학규정에 따라 학점학기 17 학점이상 취득, 평균점수 3.0이상인 자(불교대, 경영대, 사회과대학 1.2,3학년, 경제학 전공은 15학점)
4. 응모팀 구성: 동일전공(대학) 재학생 3명으로 한다.
5. 선발인원: 60명(20팀x3명),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6. 탐방국가 및 선발일: ① 미주(남미포함): 7팀 ② 유럽(호주포함): 7팀, ③ 일본: 3팀 ④ 중국,아시아: 3팀
7. 탐방기간: 2주일간(13차 14일)
8. 탐방팀 지원내역: 왕복항공권(제1목적지) 및 소정의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지원내역(1인기준)
9. 제출서류: 참가지원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학 생 처

화학과 개설50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및 기념식

일시: 2004. 5. 15 (토요일) 오후 3:00 ~ 8:00
장소: 동국대학교 과학관

행사내용 및 순서

- ▷ 1부: 학술강연회 (오후 3:00시부터, 장소: 명진관 104강의실)
3:00 ~ 4:00 이해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석좌연구원)
연제: 연구생활 40년과 동국대학교
4:00 ~ 5:00 전무식 박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연제: 물과 생명의 과학
▷ 2부: 화학과 50주년 기념식 (오후 5:00시부터, 장소: 상록원 3층)
▷ 3부: 연회 및 리셉션 (오후 6:00시부터, 장소: 상록원 3층)

주최: 동국대학교 화학과
후원: 화학과동창회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 1. 행사명: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 행사내용: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소포로 발송해드립니다.
3. 접수기간: 2004. 4. 26(월)~ 5. 12(수) 09:00-17:00까지
4. 접수처: 본관 학생복지실 (☎ 2260-3048)
5. 편지·선물 발송일: 2003. 5. 13(목)
※유의사항: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은사님의 재직학교 주소여야 함.

학 생 처

# 동국 인문학을 이끌어 온 동국 문학 백년

## 빛나는 이름안고 미래 향해 나아가는 입김되고자 노력

이제 우리는 동국 백년의 고갯마루 위로 막 올라서고 있다. 때로는 숨가쁘게, 때로는 씩씩하게 달려온 길, 한 세기의 봄 우리가 어느덧 이마에 다가선다.

돌아보면 나우리치는 산줄기 즐기, 골짜기 골짜기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묵은 발이랑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워서 가르치게 되는 우리를 고향 중의 고향, 명진학교(1906)에서 중앙학립(1916)과 중앙불교전문학교(1928), 해동전문학교(1940)를 거쳐 동국대학교(1946)에 이르는 40년의 전사(前史)가 더욱 아스라하다.

그러나 시간의 책갈피마다 남아 있는 전통의 손길들은 오늘 분명 우리의 발발에도 있고 어깨 위에도 있다.

그렇다. 사자와도 같이 코끼리라도 같이, 지난 백년은 자궁과 자부, 격려와 다짐의 군센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학문 백년이 어찌 예사로울 수 있는가. 수목빛 세월의 공덕 속에 울울창창 자리나온 것은 '동국정신'의 깊숙한 숲일 터이다. 그 숲의 향기로운 입김은 일찍이 만해 스님께서 던지신 일러주신 바 있지 않던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져서 /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알 수 없음)



한용운 양주동 서정주 신경림 조정래 문정희

전통은 그런 것이다. 알 수 없는 향기와 같다. 도드라져 보이지 않고 강렬하지도 않으며, 창호지에 배는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또한 육피지층처럼 막강하게 두텁다.

문사철(文史哲)이 동국정신의 달빛이요 육피지층이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문학이 인문학 전반을 선도해 온 게 동국의 역사이다.

### 문학으로 살피 본 동국의 학풍

1958년 12월에 간행된 '동국시집' 7집 발문에서 국문과 교수이자 당대 최고의 비평가였던 조연현은 동국문학의 전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신의 방향이나 가치의 표준이 기계적이기보다는 생명적 이요, 서구적이기보다는 동양적이요, 이지적이기보다는 신앙적이요, 기교적이기보다는 사상적이요, 시류적이기보다는 근원적이요, 모방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경향이 그것이다."

이것은 문학 전통에 대한 분석이지만 사실은 동국 인문학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 간명한 비교와 대조의 수사법을 통해 '깊은 나무'의 상징이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깊은 나무는 오래 묵은 고사목이 아니다. 병화불입 후미진 고살에 나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더욱 아니다.

깊은 나무는 천년을 살아온 나무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천년을 위해 쓰일 나무이다. '생명·동양·신앙·사상·근원·창조'의 미덕이 이 상징의 세부들이다.

그러므로 동국 학문의 백년 전통은 미래의 백년 천년을 예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능성으로 언제나 살아 숨쉬다.

만유의 근원을 자유라고 갈파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확철대오, 겨레어를 갈고 다듬어 수많은 절창을 빚어낸 미당 서정주의 자강불식, 그 찬란한 개척과 즐기찬 노력이 동국 학풍의 두 축이다.

이 두 가지는 선후와 경중이 없으며, 서로 멀리하는 꺼림도 없으며, 오직 융맹정진 분부노력함으로써만 함께 얻어지는 지혜의 보석과도 같다.

세계의 마지막 나라 대한민국의 맨 마지막 정적과 의무 속에 자리하여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있는 모교여, 삼세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거운 한복판 영원 속의 가장 후미진 서재,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모교여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

개교 62주년 기념시인 서정주의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가 암시하는 역설의 미학이 융맹정진 바로 그것이다.

가장 밝은 눈은 '삼세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거운 한복판'과 '영원 속의 가장 후미진 서재'에서 나온다는 통찰이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분부노력하게 한다.

### 개교 백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무엇을 일러 귀감이라 하는가. 한국의 대표적인 산악 예세 이스트요 국어교육과 교수였던 시인 장호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붓글로 이팔청춘의 기예를 빛냈는데, 소년 명필의 문장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쏙인다.

사람이 젊어서는 시간 아낄 줄 모른다. 알더라도 크게 아낄 줄 모른다. 사십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낄 줄 알게 되지만, 그때는 기운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옛사람들은 학문을 함에 반드시 때 맞추어 힘을 쓰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백 번 후회해도 끝내 무익하다.

(人方小壯時不知惜陰，雖知不至太惜。過四十已後始知惜陰，既知之時精力漸耗，故人爲學須要及時勉勵，不則百悔亦竟無益。 言志錄鈔)

배움에는 다 때가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말한다. 동국 백년이 성큼 성큼 다가온다. 우리는 너무나이 지난 수목빛 수침 속의 빛나는 이름들을 떠올린다. 근대 한국불교의 석학이자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석전 박한영 대종사,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떨친 만해 한용운, 박람강기의 무에 양주동 교수……, 신석정, 김달진, 서정주, 조지훈, 이형기, 신경림, 조정래, 문정희……. 동국 문학의 하늘에 뜬 별들을 헤아리는 것은 새삼스럽다.

그 이름을 불러내는 것은, 어쩌면 족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즐기고 앞으로는 도무지 나아갈 줄 모르는 회고주의자의 타령일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우리의 책무는 '스치고 가는' 것이다. 그것은 없는 듯 하면서 있는 것이고 고요한 듯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으며, 안으로 안으로 실력을 쌓는 것이다. 개인으로는 주인공됨, 동국가족 전체로는 하나됨을 깨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향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미래의 백년 천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입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때에는, 대운동장 위 정남방향의 하늘을 향해 찬연한 문기(文氣)를 내리찍는 정각원 주련(柱聯)이 더욱 씩씩할 터이다.

동국상방대광명(東國常放大光明).

윤재웅  
서원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이 지수 인도철학과 교수  
사상가 이야기



### 인도의 불교철학자 나가르주나(용수) (A.D. 1-2세기경)

나가르주나(A.D. 1-2세기경)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만날 수 있는 공(空)을 논리적, 철학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그 후에 발달된 대승불교 철학의 기반을 놓는 데 기여한 분으로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는 여덟 개의 불교종파의 종조로서 심지어는 제2의 부처님으로 추앙받아 왔다.

석존의 가르침 가운데는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을 규정짓는 3법인(法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간이건 세계건 모든 것에 불변적인 실체가 없다(제법무아 諸法無我)는 것이다.

모든 것은 분리되고 고정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되고 그에 의존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멸하므로(緣起)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공의 의미이며, 오늘날의 과학으로 입증된 진리이기도 하다.

공의 진리를 단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 체험으로 깨닫는 지혜를 반야(般若, prāñā)라고 부른다.

'반야'의 '야'(jñā)는 'knowledge', 'gnosis' 등과 같은 어원을 가지며, '뛰어난'이라는 의미의 '반'(pra-)과 합성하여 일상적 지식과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가리킨다. 일상적 앎은 예를 들어 '이것은 나의 차이다'라고 인식할 때 아는 주체인 '나'가 있고 그에 마주하여 '차'라는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앎은 단지 객관적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기중심적 성향과 결합되어 나에 대한 집착(我執)과 대상에 대한 집착(法執)을 낳고, 그 집착이 우리를 속박하고 좌절과 불안, 불만족 다시 말하자면 고통(苦)을 낳게 된다.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며, 언어로 인해 과거의 지식과 지혜가 기록되고 보전, 전승되며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 대개 그렇듯이 언어가 주는 부작용도 크다.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실제로 있어선 각각 특수한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가는 것이지만 시공을 넘어서 적용되는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마치 고정 불변하는 실체라고 착각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특정한 나무에 대해 '은행나무'라는 레벨을 붙이고 나면 그것은 어찌나 오늘이나 자기동일성을 지닌 나무로 인식되고, 우리는 나무 자체를 보는 대신 '은행나무'라는 말을 나무 자체와 동일시하게 된다.

더욱이 언어와 더불어 작용하는 인간의 사유는 본래 나뉘어져 있지 않은 유기적 전체로서의 실재를 이분화의 습성에 따라서 '같은 것과 다른 것', 'A와 A가 아닌 것' 등으로 나눈 후에 그 각각에 실체성을 부여하게 되며 미혹된 우리의 주관에 의해 갖가지 언어적 허구의 그물을 짜내어 그 속에서 거저 안전감을 느낀다. 나가르주나는 파사(破邪)의 논리로 인간을 언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언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석존께서 가르치신 5온·12처·18계·4제·12연기가 모두 부정되지만 그것은 법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함이며,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궁극적 진리'(승의제)를 가리키는 '언어적 진리'(언설제)로서의 기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앎은 단지 객관적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기중심적 성향과 결합되어 나에 대한 집착(我執)과 대상에 대한 집착(法執)을 낳고, 그 집착이 우리를 속박하고 좌절과 불안, 불만족 다시 말하자면 고통(苦)을 낳게 된다.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며, 언어로 인해 과거의 지식과 지혜가 기록되고 보전, 전승되며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 대개 그렇듯이 언어가 주는 부작용도 크다.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실제로 있어선 각각 특수한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가는 것이지만 시공을 넘어서 적용되는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마치 고정 불변하는 실체라고 착각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특정한 나무에 대해 '은행나무'라는 레벨을 붙이고 나면 그것은 어찌나 오늘이나 자기동일성을 지닌 나무로 인식되고, 우리는 나무 자체를 보는 대신 '은행나무'라는 말을 나무 자체와 동일시하게 된다.

더욱이 언어와 더불어 작용하는 인간의 사유는 본래 나뉘어져 있지 않은 유기적 전체로서의 실재를 이분화의 습성에 따라서 '같은 것과 다른 것', 'A와 A가 아닌 것' 등으로 나눈 후에 그 각각에 실체성을 부여하게 되며 미혹된 우리의 주관에 의해 갖가지 언어적 허구의 그물을 짜내어 그 속에서 거저 안전감을 느낀다. 나가르주나는 파사(破邪)의 논리로 인간을 언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언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석존께서 가르치신 5온·12처·18계·4제·12연기가 모두 부정되지만 그것은 법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함이며,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궁극적 진리'(승의제)를 가리키는 '언어적 진리'(언설제)로서의 기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학술단신

####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학술세미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대학원장=이황우·경찰행정학)이 개원 38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본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교차 상태에 있었던 6자회담이 마침내 실마리를 보임에 따라 '6자회담과 북핵문제'라는 주제 아래 △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회담 △6자회담과 북·미의 전략 △6자회담과 한국의 역할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사회는 강성운(북한학)교수가 맡으며, 김태우(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교수, 강원식(관동대 북한학)교수가 발표를 한다.

#### 개교 98주년 기념 기증유물 특별전

본교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이 개교 98주년 기념 기증 유물 특별전을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근래에 박물관에서 매 해 진행해 오던 행사로 지금까지 박물관에 기증 받은 유물들 중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 7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품은 지난해 12월 정기용 씨가 기증한 금속공예품, 토기류와 김도경 씨가 기증한 도자기와 토기류, 본교 전 총장이었던 이지관 스님의 그림과 강석주 스님이 기증한 도자기와 제불침 등이다.

관람실은 박물관 제2전시실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개교기념  
치사

# 한마음으로 '동국' 위해 정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가 문을 연지 어언 98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학들도 이 조그만 반도의 국지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 이 나라 불교계 선각자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근대화된 고등교육에 심혈을 쏟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의 대학들은 세계 선진문명과 한치의 틈도 없이 호흡을 같이 하고 어깨를 겨루지 않으면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를 비롯하여 과거 한국의 많은 대학들은 흔히 민족사학, 또는 민족대학을 내세우면서 다분히 이념적 인간형 또는 이념화된 지성들을 길러내는 데서 대학의 가치와 긍지를 느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이처럼 정형화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 인간형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문명의 이기와 문화의 개념이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면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혜

혁신적인 교육의 틀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될 당위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의 건학이념을 불교만의 터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의 차원에서 현창하여 인류의 정신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학술적 지평을 넓혀 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껏 동국의 전통으로 자랑해 왔던 민족문화의 창달도 이 반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지구촌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질을 높이고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이기주의를 버려야합니다. 학문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적인 확대를 위하여 과감하게 '동국'의 문화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서의 석학들이 이 목적의 언덕에서 자유롭게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전수할 그런 날이 머지 않은 미래에 전개되

었으면 합니다. 바로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개교 100주년의 의의는 이처럼 우리 '동국'이 학문과 교육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때 비로소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우리가 스스로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이제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조하는 데서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과 우리 법인은 흥기삼 총장의 인격과 역량을 신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교 100주년을 즈음하여 흥총장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이러한 틀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앞에 산적한 많은 미래의 사안들도 지금 착실하게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는 물론 제도적 개선까지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이 '동국'을 위해 정진한다면, 우리 대학은 머지 않은 장래에 웅비의 나라를 한껏 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재단도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진취적으로 학교를 뒷받침할 것이며, 아울러 종단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2년후 100주년의 멋진 금자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교기념  
총장 인터뷰



올해로 개교 98주년을 맞이한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3대 명문사학에 진입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동국발전'에 대한 학내구성원과 동문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이에 임기 2년째를 맞이한 본교 흥기삼 총장을 만나 건학 100주년의 지향점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개교 98주년을 맞이한 소감 및 건학 100주년의 지향점과 계획이 있다면.

=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자체가 감격이다. 일본제국주의자가 우리학교를 2번이나 강제 폐교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음에도 민족자주교육을 일으키려는 선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런 훌륭한 선각자들의 정신은 우리대학이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가 그만한 실력과 발전을 거듭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질 높은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의 본질보다 외형적인 투자에 집중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엄청난 과거반성과 극복과제가 남아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반드시 대학의 진로를 개척하고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눈부신 결과를 이뤄야 할 것이다.

- 불교종합병원 개원준비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은.

= 농협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후 개인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지속적으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불교병원보다 교육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

# “교육강화 지향점 삼아 명문사학 도약 해야”

인 지향적이고, 학교가 건재해야 병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재임기간 교비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록금을 투자해서는 학교가 절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병원은 5~6개의 의료센터 중심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즉, 몇몇 분야를 특성화해 그 분야는 전국최고의 의료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양방 협진의 이점을 부각시키고 외국병원의 제휴를 통해 세계적인 교수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교종합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도 선진의료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더불어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발원하는 만큼 선센터를 설립하는 등 환자의 정신을 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 불교생태학 특성화 진행사업 현황은.

=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생태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학문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태학은 사물간의 상호존성을 토대로 하고, 이는 불교의 '연기'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생태학은 학문적 방법은 있는데 사상과 철학이 없는 반면, 불교는 사상과 철학이 있어도 학문적 방법이 없어 서로 어울릴 수 없다.

불교와 생태학의 접목을 통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재탄생할 수 있고 건학이념을 존중하면서도 아카데미즘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모든 학문이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환경과 행정' 등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불교생태학 특성화를 위해 교양강좌를 개설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에 교육기획단과 불교문화연구원 등 여러 실무부서에서 이런 불교생태학 특성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학기는 생명자원과학대, 다음 학기는 공과대에서 불교생태학과 학제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이밖에 학술지 창간도 계획 중이다.

- 필동병원 매입지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지.

= 교비와 건축기금, 발전기금과 외부수주 연구비 중 간접비로 네가지 예산이 사용된다.

이 중 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재원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동문들의 발전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100만등 달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부채에 교비를 투입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최대한 교육환경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

- 본관점거시대 등 학교와 학생회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 학생들이 지식같은 제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자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교육자로서 엄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다.

학생회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과 다른 특별한 관계로 있을 수는 없다. 학칙에 위배되거나 민주시민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학생회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본관점거가 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대학의 본질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다. 다른 대학보다 3~4배 더 공부시키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이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업적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과 달리 교육업적부분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고, 교양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전공과목을 3~4배 증설해 전공심화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느 대학보다도 많이 공부시킨다면 우리 대학만은 취업난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하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 건학 100주년에는 모든 종목이 전국제패를 이룰 수 있도록 체육부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투자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동국대 발전'이라는 꿈을 품고 우수교원 확보와 발전기금 모금, 대외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꿈만 있다고 모두 이룰 수는 없는 만큼 구성원과 동문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개교기념  
축사

# 세계속 동국위해 역량 발휘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 98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18만 동문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국은 그동안 민족 수난 속에서도 온 누리에 자비의 빛을 밝히며 지성과 학문의 요람으로, 또한 문화 창달의 선구자로서, 민족의 근대사와 함께 개교 98주년의 전통과 영광을 쌓아 왔습니다.

2006년 개교 100주년을 앞둔 지금, 동국대학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시켜야 할 역사적 명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동국'도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양적인 확대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국'은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열린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학분야는 물론 첨단 과학분야의 연구에 눈부신 발전



총동창회장 류주형

과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 포항, 인천, 분당 등 전국 여러곳에 있는 동국의료원과 미국 LA에 동국로얄대학교, 일산 제3캠퍼스와 불교병원개원 등 우리 모교는 첨단 지식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교의 이러한 도약과 웅비하는 기상에 발 맞춰 우리 총동창회 18만 동국인도 동국 발전을 위해 하나로

모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를 도와 세계속의 동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와 재단은 동국의 특성을 살려 전략적 발전 방향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동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후배 재학생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성교육을 통해 동국발전

에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동국인들에게 동국백년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교 9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해 이사장 큰스님과 흥기삼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동국가족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개교특집 특별간담회

# 참여 이끄는 100주년 사업 진행해야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2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주제로 박인성(불교학) 교수, 광대경(경찰행정학) 교수, 선상규 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본부장, 윤지원(신방3) 양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 민족정신 이어온 98년

**사회자(본사 주간 고재석 교수)=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98주년을 맞이했고 2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건학 100주년이 우리사회와 동국인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인성=우리나라 근대사는 외세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세에 외세침략을 많이 받았고 외세문화도 많이 흘러들어들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불교는 우리민족의 근간으로서 전통적인 흐름을 이어주는 교리역할을 해왔고 선각자들은 민족교육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학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선각자들의 노력과 달리 현재 우리학교는 투철한 역사적식 속에서 불교정신이 정립되지 못한 채 양적 물량에 기대어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섭섭함을 느끼게 한다.

이보다 근대사 움직임 속에서 불교를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100주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대경=동국대는 선각자들이 민족의 정신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민족의 장기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이런 민족의식의 바탕 속에 내실 있고 튼튼한 민족교육기관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00주년 된 기간 동안의 업적이나 시간의 의미를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선상규=100년 역사 그자체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학교와 달리 외세자본이 아닌 순수민족자본으로 선각자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들의 위업과 뜻을 살렸는가, 그만한 인재를 길렀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자=현재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진행**



선상규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본부장



박인성(불교학) 교수



광대경(경찰행정학) 교수



윤지원(신방3) 양

## 중이고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선상규=건학에 참여했던 선각자들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자 학교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옛 자료를 수집 중인데 1930년도 이전 자료도 찾기 어렵다.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좋은 건물을 짓고 국제학술세미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10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하게 짚고 미래에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장점과 단점,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으로서 고민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구성원들 모두 의식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100주년 기념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했지만 이를 승용차에 붙이고 다니는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도 학교행사 때에는 기념 모자 등을 나눠주는데 행사 당시에만 쓰는 경우가 많다. 여러 행사를 마련해도 참여가 부족하다보니 아쉽다.

## 자금심·참여 부족 걸림돌

**사회자=그렇다면 100주년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윤지원=우수한 대학이라고 하면 우수 인재가 사회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역사가 비슷한 다른 대학보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졸업생이 적은 것 같다.

이에 따라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성화사업과 교육의 질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경쟁

력 있는 학과에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과감히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면 특성학과에 더 투자하자는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 교수총원과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교수총원을 통해 수업당 학생수를 줄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공학인증제와 같이 학업 뿐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입시에서 우리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숙사를 건립해 지방 학생을 위한 소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박인성=현대사회에서 불교가 교리로서, 수행으로서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지만 불교를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긍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불교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채 오히려 불교만이 좋다는 배타의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불교대의 발전과 나아가 불교의 발전에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동국대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종단과 불교지식인들도 학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불교학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불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광대경=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경직성이 문제이다. 즉 사회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교수법 개발과 기본적인 시설투자에서부터 뒤떨어지는 것이다.**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교육의 내실화에 학교정책자와 교수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때도 학생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해 학생을 끌어들이야 하는 것이다.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제도화시킨다면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공동목표 설정해 지속적 추진해야

**선상규=공간이나 교수부족도 걸림돌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성원 각자 학교발전을 위한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학교가 학생을 보는 시각과 학생이 학교를 보는 시각이 상이하보니 융합이 잘 안 되고 공동목표를 갖기 힘든 것이다.

이에 힘들더라도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애교심을 한 곳으로 모아 공통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로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동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워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결정자가 바뀌면 투자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비전자체가 새로워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도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 이에 구성원들의 공동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자(정리발언)=동국대가 100주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가슴 속에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점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역할은 결국 학교정책결정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국대의 역사를 차근차근 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를 깨끗이 청산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본교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현황 타임캡슐 제작 등 다양한 행사준비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2년 앞두고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9일 여의도에서 '이웃사랑나누기 서울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더불어 경주캠퍼스 구성원과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각각 D-700일은 '경주캠퍼스의 날'과 D-500일은 '동국인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동대백년사 편찬간행위원회를 통해 동국 1백년사를 책으로 편찬하고 누구든지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불교전산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타임캡슐 제작 △학내·외 차량에 개교 100주년 기념 스티커 배포 △기념우표 △내년 2월 예정인 박영석 동문 7대륙 최고봉 3극점 도전 사업 후원 △국제학술회의 △건학에 헌신한 선각자 찾기 등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타 대학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살펴볼수록 하다.

**▲고려대=**오는 2005년 1백주년을 맞이해 '국제화 대학을 목표로 영여 강의를 대규모 확충하고 있으며, I-house(외국인 기숙사)가 내년 2월 새 학기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스링크, 국제관, 생명과학관 등을 차례로 준공했고 특히 1백주년 기념관 건립은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다. 1백주년기념관은 내부에는 박물관과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서며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외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1백년사 전시실 등으로 세분화될 뿐 아니라 향온합가능 수장고 등의 전시필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센터 역시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 열람실 및 강의실 △스타디움 △디지털 카페 등으로 세분화된다.

**▲숙명여대=**본교와 함께 2006년도에 1백주년을 맞는 숙명여대는 '여대'라는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고등교육 100년의 성과와 비전'이란 주제를 100명의 여성 사회저명인사와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

이와 함께 △100만 장학 구좌 갖기 운동 △문화엑스포 개최 △숙명 100년사 편찬 △100주년 기념 홈페이지 구축 등도 진행 중이다.

**▲숭실대=**지난 97년 개교 1백주년을 맞은 숭실대는 노량진부터 교내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 사회봉사 한마당 △북한 동포 돕기 모금 전달 △열린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상 몇몇 대학의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교 기념행사의 경우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색을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행사들이 100일을 단위로 기획되어 있어 '단기적인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기념행사 기획에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윤진 기자  
dbswis@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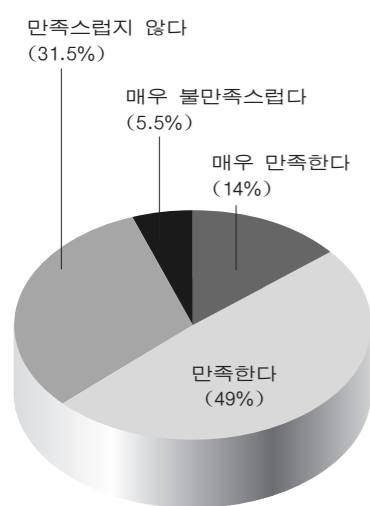
동대인 학교의식 설문조사

# 재학생 63% 본교 구성원임에 만족

개교 98주년을 맞이해 본사에서는 개내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을 들어보고자 개교기념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서울캠퍼스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 ◆동국대 구성원이라는 점에 만족하십니까?



본교 재학생의 63%가 동국대 구성원이라는 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48.5%)을 꼽았고, 이어 오랜 역사와 전통(23.5%)과 문학·예술인 등 우수한 인재 양성(13%),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문학(9.5%)으로 조사됐다.

학교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예산확충(31%)과 재·종단의 적극적인 협조(21%)를 선정해 재단 측의 지원금 확충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의 집중투자대상으로는 공간확충(35%)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 취업지원대책 마련(21%)과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18.5%)을 선정했다. 이 중 공간을 확충할 경우 교육공간(35%)과 학생자치공간(16.5%), 기숙사(15.5%)를 시급히 확충해야 할 공간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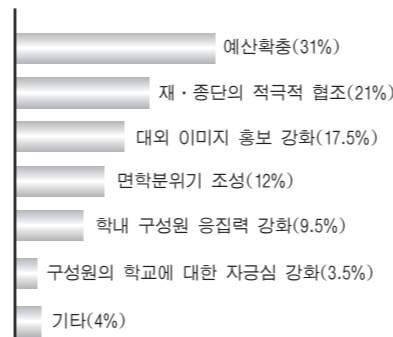
‘동국대하면 코끼리가 생각난다.’ 본교생들은 동국대하면 떠오르는 상징

으로 코끼리(31%)를 꼽았으며 팔정도(12%), 정각원(8%) 등 불교관련 건물이나 장소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만해 한용운이 동국대하면 떠오르는 인물 1위로 조사됐다. 이어 전지현이 2위를, 이밖에 조정래와 서정주, 신경림 등 문인들과 조인성 등 연예인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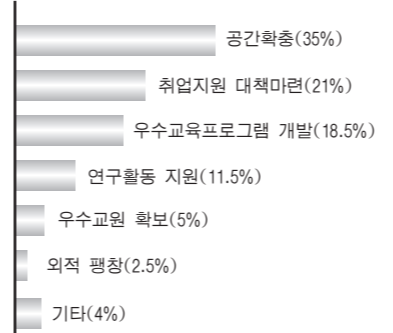
한편, 본교생들의 학교역사에 대한 인식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약 60%는 설립 당시의 학교이름을 알고 있지 못했으며, 약 30%의 학생은 올해로 개교 몇 주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본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측도 외형적인 투자나 이미지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취직로 배우는 건학 100년’ 등 학교역사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교생들이 동국대의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하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내학술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건학 100주년을 중구 전체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가장 시급한 과제는?



### ◆가장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는?



## 개교 98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골목호프 주인**  
김송린(42) 씨



동국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8년 전 이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고서부터였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에는 학생들과 단순히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일해서 인지 반갑게 말 한마디 걸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이 쌓여가던 이제는 모두 다 내 지식 같고 조카 같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 요즘도 가끔씩 졸업해서 결혼한다. 출산한다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 동국대학교가 나에게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새삼 고맙기도 하다.

**서울 중부경찰서**  
김봉래(42) 경사



이곳 중부경찰서에 오기 전 강남 쪽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그 곳에서는 매일 수십 건의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곳으로 온 이후에는 아직 이렇다할 사건이 없어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로 가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모두 우리 후배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밤에 만취해 이성을 잃은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만 고쳐 주면 동국대 학생들이 더욱 좋아질 것 같다.

**팔정도 수위**  
박세춘(59)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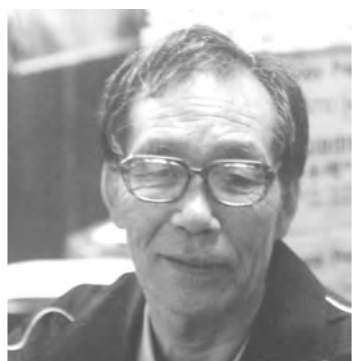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동국대가 역사가 깊은 학교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학교에 와보니 그 유구한 역사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팔정도 수위를 맡게 되면서 불상과 코끼리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표적 상징물인 만큼 이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요즘은 한창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도 그 때의 그 미소를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흥관 복사실**  
손성남(60) 씨



동국대에서 복사 일을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공과대 교수들의 스케줄과 언제 학교에 들어 와서 언제 퇴임했는지까지 술술 외우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여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여러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데 직접 학교에서 바로고 착실한 모습들이었다.

특히 남의 물건을 주으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보관해 달라고 부탁할 때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98년 퇴임한 오형근 전 불교학 교수

“난 지금 ‘행복한 강’의 를 하고 있다네.”  
지난 98년 퇴임한 후 재임 때 하지 못한 학문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오형근(불교학) 교수.

오 교수는 강의에 쫓기거나 행정적 업무에 지친던 재임 때와 달리 아무것도 구애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지금이 즐겁다. 그는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 서적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한 지 오래지만 백발이 성성해진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불교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불교 연구는 인도나 중국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학에 관한 연구가 없어 변변한 전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교수는 ‘금강삼매경론’ 등의 번역

작업을 통해 한국불교계를 시초부터 정리해 나가겠다고 한다. 때문에 자신의 전공인 유식학을 넘어 불교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노트해 가며 공부하고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평생 불교 교육에 매진해 많은 제자를 배출했지만 본교에 오 교수의 학문을 이을 후학을 양성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이라고 한다.

“후학들이 한국 불교를 잘 연구해 세계에 수출할 사상으로 키워 주기 바랍니다.”



## 4·19혁명 이끌었던 김철봉 동문

1960년 4월 19일, “우리의 젊은 학우들이 강태에게 맞아 죽고 나라가 망해가는 한국에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며 “정의를 위해서 쫓겨가야겠다”고 외치며, 일어나시오”라며 본교 강의실, 도서관 등을 밤미치광이가 되어 뛰어다니며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철봉(법58졸) 동문이다.

그의 말 한 마디에 동대생들은 물밀 듯이 밀려 경무대를 향해 달려던 중 총성이 들려왔고 앞장서던 농대생 40~50명가량과 노회두 군 등이 쓰러졌다고 한다. 결국 동대생들의 피를 보고 교수, 시민 등 전 나라가 일어났고 4·19는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다.

그러나 정작 4·19 혁명을 보도한 신문들은 주역을 서울대나 고려대 쪽으로 편향되게 보도했다. 본교는 가장 최선두에서 유혈충돌까지 벌였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

했다. 아직도 이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김동문.

현재 김동문은 본교 4·19 혁명동지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 참석, 기고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밖에서 동국대가 내 모교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외 구성원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는 김동문. 앞으로도 학교의 명예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의 말에서 동국의 빛이 보였다.



## 92년 전체 수석 졸업자 손승호 동문

대학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의 사회 생활에서도 그 역시 ‘일등’일까. 지난 92학년도 전체 수석을 차지한 이후 그의 인생 역시 그야말로 ‘모범생’답게 꾸려가고 있는 손승호(경제92졸)동문.

그에게 지난 학교생활은 지금의 버젓한 사회인으로서 그를 있게 한 큰 버팀목이었다. “그 당시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학점 짜게 주시기로 소문났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알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지난 학교생활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에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겸손이 배어나온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조사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신용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손동문. 실제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 방송국, 학회, 연구소 등에서 자료요청과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요즘도 봄에 꽃이 피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바라보면 남산의 풍경이 생각나곤 한다는 손승호 동문은 학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도 잊지 않는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언제나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손동문의 모습을 통해 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당연한 선배들의 열정적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건학 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등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헌등씩 헌등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 지로접수 : 지로번호 (7606368)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취재기

# 노동자 목소리 모은 축제 한마당

160일 넘게 명동성당에서 사회 최하층의 대우를 받으면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이주노동자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차별받는 여성노동자.

이들이 노동착취와 억압에 맞서 울분을 토하는 자리가 114번째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대학로에서 열린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1만 5천여명의 노동자와 대학생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러다 파병 철폐 △WTO의 FTA 반대 △노동건강권 쟁취 △노동3권 강화 △사회공공성 강화 등 6가지를 내세우며 노동절대회는 진행됐다.

“아침 6시부터 일하고도 일당이 2만 800원이야. 한달 꼬박해도 56만 7650원밖에 못 받는다. 이 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노동절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최저임금실현전’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최저임금제 개선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며 민주노동당과 정규직 노동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오한승(서울대 법2)군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가혹한 조건 속에 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며 비정규직의 임금보장을 주장했다.

본 행사가 시작되자 무대 한편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입장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인 만큼 ‘질긴 놀 반드시 이긴다’, ‘이 자식들 보이면 XX낸다’ 등 거친 구호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서 깃발들이 입장한 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축사에서 “노동절은 여러 나라에서 축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탄압받고 착취받는 노동자의 투쟁의

장”이라며 “60%의 비정규직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에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돼 이번 노동자의 날은 발전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힘으로 뽑은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이 노동관련 법안을 만들고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무대 다른 쪽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노동허가제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 나딤(방글라데시·33) 씨는 “우리도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68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절에서는 예년과 다른 점은 전경들이 무장 해제하고 있는 낯선(?)광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투쟁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축제분위기로 자리잡고 있는 듯 보였다. 행사에 참가한 이호원(연세대 경제2)군은 “지난해에 참가했을 때에는 가는 곳마다 전경들이 에워싸고 있어 대처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분위기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가벼워졌다”며 “행사중간에 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외치는 노동자부터 심지어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노동자까지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이 있어나고 있다. 이전보다는 환경조건이 나아지고 시위도 축제의 성격으로 열여지는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한국 이주노동자의 설움

‘이슬람’은 3년 전 입국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다.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이탈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다 작년 말 합법화 조치 대상이 되어 E-9비자를 받았다. ‘시티’는 이보다 1년 늦게 한국에 들어와 역시 E-9비자를 가지고 있다. 올해 26살이 된 시티는 인도네시아가 고향이다. 이들은 결혼식은 따로 하지 못했지만, 아직 신혼의 단내가 풍긋한 부부다.

이슬람과 시티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초 센터 방문을 통해서다. “우리, 한국말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라며 운을 댄 이들의 사연은 합법화조치 이후 전체 상담의 절반을 넘기고 있는 ‘사업장 이동’ 문제였다.

이들은 1년 전부터 김포에 있는 가구공장에

서 함께 일해 왔다. E-9비자도 가구공장에서 받았다. 합법화 조치 과정 중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가구공장 사장은 일감이 줄어들자 이들의 임금을 계약서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했다. 이에 항의하는 두 사람을 향해 사업주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탈 신고하면 너희를 불법 되는 거 알지?”라며 오히려 억박질했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등록증을 본인들한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슬람과 시티의 이야기를 듣고 김포 공장을 방문했다. 사업주는 인권센터에 신고했다는 말에 보관하던 등록증을 돌려주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상한 이들이 한 공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워져 있었다. 그래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게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사업주는 문제 될 게 없다며 거절했다. 현행 고용허가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김포에서 돌아 온 며칠 후 이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 처남이 “왜, 센터에 신고했냐?”며 때려 병원에 실려 갔다가 지금은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는 중이라고 했다. 비자 없는 사람들은 이슬람처럼 맞아야 신고조차 못한다. 강제추방 때문이다.

이슬람과 시티는 결국 피를 보고서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른 가구공장에서 들만의 달콤한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부디 어두운 한국 땅에서 만나 키운 아름다운 사랑 각박한 현실에 굴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편집장

## 민노당 노회찬당선자 초청 강연회

# “보수진영 점차 퇴행 진보전선 키워나갈터”



지난 4·15총선으로 40여년이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제1당이 바뀌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실현됐다.

이와 관련,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경민·국문학 석사과정)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갖는 의미와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주제로 지난 7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전까지 국회는 기득권세력의 것이었다.”

지난 50년간 보수세력들은 군부독재를 시작으로 걸모습을 바꿔가며 영남지역주의기반 등을 통해 40여년 동안 제1당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17대 총선이 갖는 의미있는 변화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가 아니다. 40여년 만에 주도세력인 보수정당세력이 교체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난 12년 동안 보수정당은 점차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120여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보수진영이 몰락해 가는 시대과정이다.

###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간의 뚜렷한 전선 생성돼야.”

2·4년 내에 열린우리당이 점차 보수적인 색채를 띄게 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비교해도 한나라당 내에 극우세력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열린우리당과 별 차이 없을 정도다. 또한 4·15총선 이후 국회에는 2개의 전선이 생성됐는데 하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차이를 나타내는 전선, 다른 하나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즉 민노당과의 사이에 생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전선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전선이 뚜렷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전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사람의 운명이 19살에 결정? 교육기회균등 위한 무상교육 실시해야”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가에 따라 친구와 취미, 조문객 등 모든 것이 결정된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지 않아 결과가 다른 것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교육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한국인구의 10%가 농민, 60%가 노동자이면 서울대 학생 부모직업의 비율도 같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의 학부모 직업 비율은 어떨까. 노동직과 전문직 비율이 40%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이 현실이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전국 국·공립대 투자를 확대해 나가 상향평준화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social@dongguk.edu



참사사람 열리고  
2004 동국 백일

#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 제 42회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1.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2일(토) 10시 30분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3.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4.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6%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기간**  
2004년 5월 3일 ~ 5월 22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6.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7.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it.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

소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그 추억은



- △고3때 생물 선생님. 자전거를 선물로 사드렸더니, 그걸 타고 복도를 횡단하시다. △몽둥이로 시작하여 몽둥이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선생님께서 TV속 자상하시고 현명하신 선생님이라고 나온 것을 보고 진실은 어디 없단 느낌이. △고2때 내 사랑 문법선생님. 그 결과 문법만 1등을 하는 영광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타 학교로 전근간신 후 찾아볼 때, 너무 기쁘셔서 모두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을 때, 난 선생님이 생각한다. △고1때 담임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라며 매일 차와 컵 라면을 끓여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 △고등학교 때 대변기 청소하고 그 물에 세수하라고 시켰던 선생님! △피를 토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시던 김찬수 선생님. 존경합니다. △고1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동해에 놀러갔던 추억.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에게 가장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는, 전근 가실 때 내 손을 잡고 눈물지으시던, 서육란 선생님. 건강하세요. △처음 교사 발령이 급남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었던 이상봉 선생님. 화양동계곡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게요. △우리들의 영원한 터프가이 김한병 선생님. 여전히 소년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나의 영원한 우상 같은 분이시다. △고2때 담임이셨고 고3때는 부담임이셨던 형봉우 선생님.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4·15 총선은 1987년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다섯 번째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였다. 선거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압승, 한나라당의 선전, 민노당의 대약진,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화 2기에 진입한 한국 정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총선거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논단

박명호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15 총선 이후의 한국정치

물론 민노당은 원내 10석에 불과하고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시민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임에 틀림없다. 셋째, 정치적 세력교체와 관련하여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정치에 새로운 정치지형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변화하는 정치 사회적 균열구조가 새로운 정당체제를 가져오는 재편선거(REALIGNMENT ELECTION)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결정지어 온 것은 지역주의 균열구조이다. 선거의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후보와 정당이 얻는 정치적 지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지역주의

를 설명하는 유일요인이 된 경우이다.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 하지만 이전보다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모습도 변했다. 동시에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세대와 이념 그리고 계층이 그것이다. 40대를 기준으로 앞 세대와 뒷 세대의 정치적 선택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따라 정치적 지지도 다르게 나타났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역주의에 가려 보이지 않던 우리사회의 갈등구조가 부각되어 정치적 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역주의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영남과 호남의 지지정당이 같은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영남과 개혁+호남에 기반한 정당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당체제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또 한번 격변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소망을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통해서 표현했다. 제17대 국회는 새 정치라는 국민적 기대를 현실화할 책무를 안고 있으며 4년 후 다시 심판대에 설 것이다.

신방과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먼저 학생회비 수납에 관하여 강제성에 따른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충분한 홍보 없이 무리하게 이끌어가게 된 점, 학생회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올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 98년까지 학과제이던 당시 매년 학생회비를 걷어왔습니다. 하지만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변화되었던 99년에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학생회비를 걷으려 노력했으나 학생회에 관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여왔던 학생회비에 대한 문제는 작년 2003년도 과 총회자리에서 공론화되어 학생회비를 걷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으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납부하지 않았기에 학생회비 걷는 것 자체를 포기 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지 부진한 학생회비에 대한 논쟁은 학생회비를 왜 내어야 하며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내역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어떻게 해서 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었고 올해 2004학년도 9대 학생회에서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도 과 학생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학생회비 문제를 청산함으로써 곧 있을 학과제로의 전환이후에까지 끌고 가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문방송학과는 95년에 개과 하여 현재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방과로서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 과민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으며 매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과의 전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고등학교 때 걷는 학급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회비는 여러 가지 과 사업을 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쓰이기도 하고 과의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 분 중 학생회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학생회비는 현재 몇 년째 갇혀서 사물함 배정을 통해 들어온 돈들과 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들의 개인적 사비로 그동안 쓰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적은 돈이지만 쓰임에 대한 내역은 3년째 (올해로 4년째) 장부로써 그 내역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 되어왔습니다. 학생회는 여러분 손으로 뽑아서 자신들의 의결을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접 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생회 과 운영회의는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 과 학생회실에서 있습니다. 들어와서 과학생회 집행부와 각 학년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의결권은 없어도 충분히 발언권이 있습니다. 오셔서 참관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회를 감시해 주십시오. 최창환(신방과 학생회장, 신문4)

동약로



"여기가 민노당 전당대회 하는 곳인가?" '제114주년 노동절 대회'가 지난 1일 대학로에서 노동자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노동절대회에서는 여느 때와 비슷하게 비정규직철폐, 노동건강권쟁취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고조됐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특별한 행사가 추가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이 전원 참석해 민주노동 등 노동단체들과 함께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을 기념하는 애드벌룬 현수막과 그림피켓, 민노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풍선 1천 여개를 설치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4년후엔 제1야당이 되고 2012년엔 집권당

엇나간 축제(?)

이 되리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2012년 집권당을 향해 전진하자" 노동절대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절대회 본 행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당 결의대회를 가지고 노동자의 발언이 아닌 민노당발언을 한 것은 일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민노당 원내진출이 노동절 대회 분위기를 흐릴 만큼 중요하냐?"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한다는 것에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에 대해 돌아보는 행사에는 소홀해져 본래 의미가 퇴색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해 송준혁(인하대 의1)군은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알아보려 참석했지만 민노당관련 발언에 묻힌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이전과 다르게 거친 분위기가 아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축제분위기 속에서 생각해보야할 처벌철폐, 노동 3권 및 건강 쟁취 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이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묻힌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황주상기자 hjs0228@dongguk.edu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 △사회과학부 김수경양 5월 7일 소개팅 합니다! △연하야 전역을 축하한다. 우린 여군을 다녀온 네가 자랑스러워. 예비역 중사 인연하 화이팅! -y&토목과 일동 △사과대 범주·창억 600日 축하! -선배 △J.S. 5월 11일 너의 결혼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재훈야, 생일 축하해!! 동욱야, 지영야 축하해 -행정 F-2 △명진수, 이한별 커플 탄생 축하 -경영학과 일동 △최성화!!(사회학과 지방생 03) 생일 축하한다 무지하게 사랑해 -민지 △영통과 김민경, 혁성이에게 돌아와~!! △북미경(03) & 김근중(98) 커플 탄생을 축하합니다. -경영학과 일동 △5월 4일 00 정외 세환오빠 생일 축하해요~ △04 영문 영통 박수진♥박현주 영통 최초 CC 역사에 남을 것이요! △형석 100일 휴가 즐겁게 놀다가라 -장선

- △아마추어 야구부 5승 축하 -환형 △민지야 I♥you! -수교과 이쁜이 편입생 4인방 △DUSSA 식구들 시험 잘 보세요 -이병 김형석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병일오빠, 영은이, 이빈이.. 그리고 용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 △선영언니! 우리도 애인 만들자! -랩프 △다영야~! 교편에서 몸 바쳐라! 지혜언니 선영언니 언니도 같이 바쳐요! △준수야! 애인 만들자!! △진수야 도서관서 남자만 찾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건축기사 붙어라지 -40 △수정야! 우리도 솔로 탈출하자! -이쁜이 △2004 대동제 선전단 여러분 제발 한번 모여봐요~ -열무 △경희야! 우리 벌써 쿠테타야. 1학기도 안 지났는데 -남친 정우 △정만야, 남식이 열심히 하자고!! 아자야 자! -KCC △수경!!(잡보, 니그로) 공부 좀 해! -성s △eumsaim 5월 18일 정기 공연 잘하자구요 -이간섭 선배 일동 △Good luck to you △MESC 화이팅~! 무영이 형 스타 연습 좀 해! △Neverending 시험 화학과 화이팅! △정석 파이팅 -이벤 △종지니 화이팅이다. -JS △중간고사의 마지막~! 군교육론 시험 대박 예상...이시길~♥

- △국어교육과 4학년 선배님들 실습 다녀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학교육과 4학년들 교육 실습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사 대박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 △특종 개성만 부상!! △시험 공부 열심히해라 나 간다. △전자과 시험 좀 끝내주세요 △태순야 휴대폰 좀 잘 챙겨라 △제발 우리 김교수 학교 좀 나오시지. 당신은 학생이야! △성표형 잔소리 좀 그만해 △5월 21일 채상운군 대학생활 마지막 예비군 훈련 △5월 20일 '백상' 응원대제전 늦은 6시 만해광장 △사랑하는 광준야 장교훈련 잘 받고 건강해~ -너의 XX가 △도서관 전자과 소모임이나 만듭니다. 지정좌석제 등등 △장선야 걱정하지마 (전혀 안 부담스러워) △카르마 online. shot's clan 짱입니다. shot\_sasin △아마추어 야구대회 꼭 참가하세요~ △성식오빠 잘 낚셨어요 △BK LOVE -행정학과 △조현야 사랑해 -석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 도우미 간사님 여러분 수고 여수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신요 고맙습니다 △현중야 성만야 100일 휴가 축하하고 앞으로 조금 더 골라라 -KCC △현여울 동아리 청소하느라 수고했어요 -이간섭 선배 일동 △신방과 등반대회 참가자 모두 수고했어요! 하나되는 자유신방! 화이팅! -신방s △총운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수고합시다! -송 △동대부총 교생 동기 23명!! 모두들 교생 하셨습니다~ -교생의 추억 올림 △송♥윤자♥명혜♥문명♥ 교생실습 멋지게 다녀왔어요 적응이 안되요~ 후후 △김공 윤석우 교생 수고했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5/10) 순두부찌개 (1300) 양송이해물볶음밥 (1500) 오징어떡볶이 (1500)	쇠고기해장국 (1500) 참치김치덮밥 (1500) 간짜육 (1500)	된장찌개 (3000) 김치찌개 (3200) 낙지볶음 (3500)
화 (5/11) 설렁탕 (1500) 불고기백반 (1800) 참치회덮밥 (1500)	육개장 (1500) 오징어덮밥 (1800) 김치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설렁탕 (3200) 고동어무조림 (3200)
수 (5/12) 부대찌개 (1500) 치킨가스 (1500) 카레볶음밥 (1500)	양지탕 (1500) 꾸꾸미제육볶음 (1800) 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낙지알살밥 (3200) 달강정 (3200)
목 (5/13) 소고기당면탕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두부김치 (1500)	돈갈비김치찌개 (1500) 치킨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된장찌개 (3000) 만두전골 (3200) 삼겹살김치볶음 (3200)
금 (5/14) 장터국밥 (1500) 닭도리탕 (1800) 갈비경단백반 (1500)	사골우거지탕 (1500) 떡볶고기 (1800) 스파게티 (1500)	된장찌개 (3000) 우물쌈밥 (3500) 해물덮밥 (3500)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환 부주관 고재석 편집국장 권병선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서평 -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극도의 자유 추구하는 현대인들



김은석 저  
우물이 있는 집 펴냄

10여년이 넘었지만, 저자인 김은석 교수를 제주도에서 만난 기억이 있다. 사학도인 김교수가 아나키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다소 신기하게 생각했고, 아마도 제주도의 아나키즘적 기질을 받은 것 같다고 농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 후 김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아나키즘으로 썼고, 이제 이를 재정리 보완하여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출판하였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나키즘은 거의 논의되지 않아서 이미 사라져 버린 이념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나키즘의 사상은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되었다. 자주 공동체 운동, 환경 생태 운동, 평화 운동, 각종 문화 및 문학 사조에 이르기까지 아나키즘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처방이 한계에 이르렀고 신선감을

상실한 데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나키즘은 자연적인 조화의 참미와 권위에 대한 저항을 통치기구의 부정으로 연결시키면서 정치 사회철학의 제 문제에 풍부한 상상력과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발간은 동화도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저자는 아나키즘을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으로 대별하고,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대표적 인물들의 사상을 개괄하고 분석하고 있다.

즉 고드윈의 인도주의적 아나키즘, 슈티르너의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즘, 터커의 자유방임적 아나키즘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보다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일체의 구속과 지배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아나키즘의 궁극적 목적에 목포에 가깝다고 하면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 애정을 보내고 있다.

이에는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독단과 권위를 배제하고 완벽한 혼내를 내는 이론을 피하면서 극도의 자유와 개인적 판단의 우위를 강조하는 아나키즘의 자유인적 태도의 성격은 각양각색의 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아나키즘의 큰 지향점은 개인의 자유와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은 분노하고 저항하고 그러면서 동태적 계기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론을 제시한다. 저자의 글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단초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주 공동체 운동, 환경 생태 운동, 평화 운동, 각종 문화 및 문학 사조에 이르기까지 아나키즘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나키즘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벼이 하면 아나키즘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나키즘과 자유주의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으면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아나키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석학들도 등장하고 있는 차제에 이 책의 출간은 아나키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

내겐 너무 특별한 날

류성녀 hallowinbi@hanmail.net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6x16 grid for a puzzle game with some cells shaded.

- 14. 이 제도를 통해 주말에 취미와 여가생활을 함. 한주일에 5일 동안만 일함.
- 16. 대부분 4년제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로 선택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 비슷한 학과를 학부로 통합해 나중에 전공학과를 나누는 제도.

세로열쇠

- 2. 본교의 교육강화를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
- 3.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반낙천적
- 5.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 나랏님. 왕.
- 8. 각 전문 과목이나 업무별로 갈라 나눔. 또는 그 나뉜 과목, 업무 등을 가리킴.
- 10. 학부제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 특성학과 편중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12. 대주제를 다시 세분화한 단위.
- 13. 大學. 영어로는 university 혹은 college.
- 15. 라이언 ○○구하기. 이등병의 바로 위 상관.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5월 17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문제 학생이 가르쳐준 참된 스승의 길

마음속에서 학생들을 키우는 선생님 되고파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무겁다. 교육 실습을 다녀와서 참으로 깊게 와 닿은 생각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습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의 속깊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나에게 스스로 속 마음을 털어놓아 주었다. 나에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털어놓아준 아이들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실습생인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 만큼 학교 현실이 각박했는가 라는 생각에 쓸쓸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참으로 귀중함을 느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를 일깨워 주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2학년인 S군은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 내가 실습한 기간에도 현을 한 죄로 학교 정소를 하는 벌을 받고 있

었다.

S군은 나와 친해진 후 상담을 청해왔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들이었다. 그는 중학교 1학년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고 전교 1등까지 했으며 반장이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때 담임선생님께서 S군의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지 1학기 도중에 반장인 그를 앞에 세우고 “나는 S군이 반장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이에 이들과 자신의 의견을 써보도록 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재판이나 다름 없었다.

그는 결국 반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를 일주일이나 결석했다고 한다. 그 후 S군은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그는 중간 성적에서 노는 축에 속하는 아이이다. S군 역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 하고 있기에 많은 칭찬과 모범

생이 다시 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마음을 털어 놓으라고 권했다. 이런 나에게 S군은 “담임 선생님이 또 상처줄지 누가 알아요? 전 선생님을 안 믿어요”라고 말했다. 나에게 “선생님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교사의 일순간의 실수가 한 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오싹해지기까지 했다.

나는 아직도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상처받은 그 눈빛은 누구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까. 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생각하고 웃고 웃는다.

그게 ‘선생님’의 위력이다.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아이들을 마음속에서 키우는 사람이기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선생님은 어찌가 무겁고 또 무거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무겁고 버거운 일을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

이교윤(사범대 국교4)

언어연구교육원으로 오세요

영어능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 외국인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언어연구교육원으로 오십시오. 동국인들의 국제화 전초기지인 교육원(회화관 1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언어교육의 중심지로 영어교육 분야와 한국어교육 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영어교육 분야에는 영어사용 5개국에서 온 13명의 교수님들이 교양과목인 영어회화와 회화특강을, 20여명 내국인 교수님들이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는 7명의 교수님들이 1년 4학기 과정으로 현재 약 90여명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8회에 걸쳐 실시하는 회화특강은 오전 8시, 오후 5시 30분 부터 1시간씩 원어인 교수님들과의 회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학년 때부터 이 강좌를 수강하면 졸업할 때 여러분의 회화능력은 고급수준까지 갈 것일

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는 10여개국에서 온 90여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몽고, 필리핀, 일본, 미국, 인도, 네팔, 캄보디아 출신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동국인들과 유학생들을 연결시켜 상대방의 언어, 문화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강때 즈음하여 연결의 장을 통해 파트너를 정하여 주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1학점도 성적표에 올려줍니다.

미래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을 동국인 여러분! 유창한 영어 능력과 외국 문화 이해가 높은 동국인들을 양성하는 국제회의 요람인 언어연구교육원에서 만납시다.

김영수(언어연구교육원 과장)

동약게시판

전기공학과 3,4학년 수학·졸업여행  
5월 26일~5월 30일  
방콕, 파타야  
32만원

경영학과 04학년 동기 엠티  
5월 14일~15일  
강촌

제15회 백상 농구 대회  
접수처 학생회관 앞  
5월 3일~5월 7일 접수  
5월 10일~6월 4일 대회

영화공동체 디딤돌  
kevin smith 영화제  
5월 12일~14일  
오후 3시, 6시  
중강당  
12일 3시-클릭스  
6시-몰래츠  
13일 3시-체이싱아미

6시-도그마  
14일 3시-제이 앤 사이렌트 밤,  
6시-겨지결(사정상 변경가능)

산업시스템 공학부 취업세미나  
5월 11일 오전 12시  
다량관 세미나실  
점심 무료 제공

멀티미디어 공학부  
3, 4학년 수학·졸업여행  
5월 17일~20일  
경남 통영, 거제도  
5월 1일~5월 17일  
16만원  
5월 1일~12일까지 회비 납부

컴퓨터 공학부  
3, 4학년 수학·졸업여행  
5월 18일~20일  
제주도  
18만원

컴퓨터 공학부 네이버 카페 신청

국어교육과 학술담당사  
5월 13일~16일  
충북 옥천

체육교육과  
2004학년도 제1차 졸업실기 고사  
5월 20일 8시 30분

장충체육관  
본교 체육교육과 4학년 전원  
생명 화학 공학과 3학년 수학여행  
5월 27일~5월 31일  
방콕 파타야  
365,000(여권비 제외)

전기공학과 1, 2학년 연합 M.T  
5월 15일~16일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3만원  
010-3022-2645(조득현)



위풍당당 동국인

본교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열린우리당 최재성(불교93졸) 당선자

“마라톤처럼 정직한 정치 할 것”



름 힘들었다. 2차례의 수감생활 중에 약혼식과 결혼식을 올려 아내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에 서로 힘들었다.

신혼초기에 우리 집은 늘 사람들로 들끓었다. 이때 2식구가 사는 집인데도 한 달에 쌀 1가마 반을 먹었다. 왜냐하면 대학입학 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부터 운동하다가 도망다니는 후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했다. 이때 군말없이 일을 다 처리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 학생 운동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현재 우리학교에 본관점거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어려운 것이 젊거다. 나오려면 그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총장 등 어느 집단의 지도부들은 건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때면 면밀히 신중한 검토로 사건을 집행해야 한다. 이전 서울대 시절 농성 행 마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의없는 접거가 많은 학생들의 제적으로 이어졌다.

어떤 사안을 집행할 때 안전과 책임 지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투쟁보다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전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얼마전 비정규직완전철폐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열린우리당사에 페인트 통을 던진 사건이 있다. 만약 내가 학생이었다면 비정규직철폐를 주장하며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지만 현재는 조국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전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소란은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보고 있다.

- 모교에 바라는 점과 하고 싶은 말.

= 동문들과 이야기해 보면 곧 건학 100주년이 되는데 현재 우리학교의 이미지, 동문들 활동, 구성원들의 관심사 등이 많이 퇴보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학교의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악습이었던 과별, 교비사용 등 좋지 않은 점이 관행처럼 되는 것이 안타깝다. 학교는 시급히 개혁을 이뤄야 한다. 젊은 세대에만 구성된 개혁이 아닌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의 각오가 필요하다.

- 자신만의 정치철학은.

= 나의 정치 철학은 민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를 정략적, 기계론적이 아닌 인간중심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생활단위 중심의 정치공공체를 지향할 것이다. 또한 나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운동 중에 유일하게 끝없이 눈치 보지 않을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완주하기 부족한 사람이라도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다른 운동과 달리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마라톤의 정직성이다. 이에 정치도 사회도 마라톤처럼 돼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사업은.

= 우선 남양주시민을 본다면 현재 초등학교 중등으로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하면서 인구가 7%씩 줄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교육분야의 상임위원을 지원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크지만 국회의원끼리 사회이슈, 정책싸움 등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당에서 이를 뒷받침 해 줄만한 정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사회를 보면 그동안 공평한 룰 속에서 살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적 강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등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던 모순의 역사다. 친일파, 학연, 지연 등이 활개치며 불평등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양하고 노력, 실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황주상 기자  
hjsz228@dongguk.edu

민주노동당 조승수(농업경제96졸) 당선자

“민중의 편에서 함께 할 거예요”



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자동전환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

- 재학당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이었던데.

= 독재정권의 탄압이 심했던 시절, 민중의 편에서 함께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민주화 운동 단체인 흥사단 아카데미를 통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한번은, 어떻게든 사복경찰의 관심을 나한테 돌려 시위를 하려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끌어야 했다. 그래서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분수에 뛰어든 적도 있었다. 지금은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치열한 고민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 민주화운동 외에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 대학 때 만난 교수님들은 나의 대학시절을 더욱 의미 깊게 만들어 주었다. 맑스주의 경제학의 대가이면서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주중환 교수님은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 동국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존경하는 분이였다.

철학과와 황필호 교수님 또한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큰 영향을 받은 교수님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운동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무관심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연행해가는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황필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

또, 정각원 처마 밑에서 남산을 바라다보며 느꼈던 평온한 세상과 막연한 불안감,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고민하며 하얀집에서 끊임없이 마셔댔던 소주에 대한 기억들도 소중한 추억이다.

- 정계진출 과정은 어땠는지.

= 전두환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된 후 경기도 지역에서 용접공으

로 취업해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고 수배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졌고 예전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나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보다 강력한 힘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사회운동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운동을 해보고 싶었다. 그 뒤 울산 시의원을 거쳐 98년 민주노동당 추천을 받아 울산 북구 청장에 최연소로 당선됐다. 북구 청장 시절에 주위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17대 총선에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2년후 헌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동국대학교 출신인 것이 항상 자랑스럽다. 다만 학교가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재단과 종단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인 없는 학교의 위치를 벗어나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개교 100주년을 맞기를 바란다.

- 앞으로의 정치활동 계획.

=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만큼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

또한 나 개인을 내세우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꼭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자세로 임하겠다.

지역구인 울산은 인구가 100만인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이 턱없이 부족해 국립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오늘의

도전하는 삶, 젊음이 있어서 우리는 즐겁다

남들이 닦아 놓은 평탄한 길보다 아무도 가지 않아 험난한 길을 택해, 즐기면서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

대학 4학년,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만 하는 것 보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 풍채 EBS '사이언스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흥해정(기계 4), 이재우(기계 4), 권성덕(기계4), 이오희(기계 3), 최만섭(기계 4)군이 바로 그들이다.

EBS '사이언스 대전'은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마련된 서바이벌 형식의 과학경연대회이다. 참가자들은 매주 바뀌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기구를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다.

처음 '사이언스 대전'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것은 흥양이었다. "애청하던 프로그램이어서 전공을 살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 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계공학과 선배들이 함께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길로틴' 제작한 해머의 모양이 단두대와 같아서 지어진 이름- 팀이 탄생했다.

"전 경기를 모니터링 하면서 서류심사를 준비했어요." 경쟁률이 상당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그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경기에 출전할 무기한 대형 해머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면서 즐거웠지만 힘든 적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중간고사기간과 겹쳐 시험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여자친구와 만날 시간이 없어 싸우는 팀원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기하지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만 꼭 우승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준비를 계속한 그들은 12개팀과 대결해 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결승전에서 첫 난관의 통과가 의외로 늦어져 상대팀과의 격차가 상당했었는데, 날뛴지 격파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길로틴'의 드라마틱한 경기는 오는 일요일(16일) 오전 11시 20분에 EBS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길로틴' 팀. 그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찾기가 힘든 도전적인 대학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고수동정



△흥기삼(국어국문학)=LA 동국로얄대학 졸업식 참석 위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방문.



△성용길(화학)=7번째 World Biomaterials Congress 학술방문 및 회의 참석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방문.



△원치선(전자공학)=학술회의 참가 위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체코 프라하 방문.



△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ISO/IEC JTC/SC7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 위해 오는 16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방문.



△홍영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WSTF EUS '04 참가 및 논문 발표 위해 오는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방문.

한의대 김철호 교수팀 과학기술포장 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전이 경로' 세계최초 규명



김철호(한의학)교수는 지난날 21일 제37회 과학의 날을 맞아 서울 COEX 오디토리움에서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선발돼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포장을 수여했다.

김철호 교수는 국가지정연구사업인 '인체복합단체 생합성제어 및 리모델링 연구사업' 결과로 세계 최초로 B형 간암 발생 원인 규명, 암치료제 개발 및 국제 특허 출원, 수경-착생기구 해명 및 조기 진단기술개발 등에 성공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전이 경로'와 관련한 이번 연구는 간암생성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관계를 해명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X 단백질(HBx)이 당쇄부기형 MMP-9 발현을 위해 세포신호 전달 단백질들(ERKs, PL3K/AKT)을 활성화 시키는 과정을 통한 간암 전이기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김교수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X단백질에 의해 생성이 촉진되는 간암유발 효소 MMP-9의 발현과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면 HBV에 의한 간암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다.

김교수는 과학기술부 국가 지정 연구사업 중 '인체 복합 단체 생합성 제어 및 리모델링' 연구사업에 연구실장으로 참여. 지난 2003년 HBV에 의해 간암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 낸데 이어 이번에 HBV에 의한 간암전행 경로를 규명했다.

이에 따라 김철호 교수팀은 간암전이 효소의 효과적인 억제제로서 신약개발을 완료하고 간암 뿐 아니라 인체 암전이 치료약물 개발을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특허는 국제 PCT에 출원돼 공개심사중이며 빠르면 3개월 내에 신약 발표예정이다.

이 내용은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 '실험생물학연발 학술지(FASEB Journal)' 5월호에 게재된다.

이와 관련해 김철호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는 TOP 10의 연구팀으로 경쟁력을 갖추어나 뒷받침할 연구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철호 교수는 지난 96년부터 본교 한의과 대학 생화학 교실 주임교수 및 난치병 연구센터 간사장, 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교수는 지난 1994년 KIST 유전공학 연구소 우수연구원 표창, 2000년 본교 우수교원을 표창한 바 있다.

경주 대학부